



여류과학자

한국화학연구소  
염료염색가공연구실  
吳世和 실장

“요즘 여성들은 신체조건도 좋고 사회인식도 많이 전환되어 남자 고유분야인 항공이나 기계분야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대덕연구단지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화학연구소 염료가공연구실의 책임자 오세화실장은 강조한다. 오실장이 19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 연구실은 상근 여성연구원만 20명으로 섬유염료를 국산화하는데 공헌했다.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직도 맡고 있는 오실장을 만나보았다.

## “여성들도 항공 기계분야 도전해야”

대덕연구단지가 대단위로 조성될 즈음, 한국화학연구소 자그마한 방 하나에서 시작된 염료염색가공연구실은 현재 상근하고 있는 여자연구원만 해도 20명이 되고, 여기에 비상근 연구원까지 합치면 40명이 넘는 큰 연구실로 성장했다.

이제는 독립된 센터로 발전하기 위해 이 연구실의 책임자인 오세화실장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자그마한 키에 다부져 보이는 오세화실장은 전체 연구원들을 100으로 봤을 때 여자연구원은 그 비율이 5% 이내이며 그나마 상위직에 있는 여자연구원의 비율은 1% 미만이라는 냉랭한 연구현실에서 꾀꾀하게 버텨온 몇 안되는 ‘장’ 자리 연구원 중 한명이다. 오세화실장이 공부하던 시

절만 해도 여자는 가정학이나 권선징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배울 때니 지금의 책임자 자리에까지 올라와 있는 여자 연구원이 많을 수 없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국내 GNP나 국가경쟁력으로 비춰 볼 때 너무나 창피한 데이터가 아닐 수 없다.

### 19년째 염색가공연구 외길

화학연구소가 76년에 설립되고 오세화실장이 아직 학생티를 채 벗지 못한 78년에 대덕에 내려왔으니까 올해로 19년째 접어들었다는 오세화실장은 당시 섬유대국이었던 국내 상황과는 다르게 전문적으로 섬유화학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가 없어서 이분야 만큼은 내가 한

번 개척해보겠다는 도전정신으로 대덕으로 향했다고 한다.

오실장이 맡고 있는 염료염색가공분야는 화학과 섬유공학이 깊숙이 반영된 학문으로 아직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염색가공은 학문적 특성 외에 예술감각과 기술까지 요구하는 분야로 오실장은 염료염색가공연구실에 몸담아 오면서 수입되는 섬유염료를 국산화하기 시작했고 아울러 염료원료의 물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간체를 개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염료와 염료중간체 개발로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

섬유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실에 비해 제법 남아있는 여자연구원에 게 오실장은 염료염색가공분야는 다른

산업과 달라서 본인이 연구하는 자체가 좋다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과학자야말로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아니겠냐고 역설한다.

과학분야는 그 범위가 넓은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 자체가 다양하고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하여 꾸준히만 연구에 임한다면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야라고 전한다. 특히 염색가공이나 정밀화학분야는 연구 특성상 환경오염이 많은 산업이라 주위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한때는 우리 경제를 살찌우게 한 산업이었던 만큼 환경과 관련된 연구가 병행되어지기만 한다면 국가경쟁력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역설한다.

### 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말야

여자연구원들이 이런 분야에 좀더 많이 진출해서 과학과 생활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활발한 연구를 해주었으면 하고 당부한다. 현재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오실장은 많진 않지만 그래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연구원들의 모임을 통해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연구토론 등을 통해 이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93년 9월 창립총회를 가진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는 전공분야를 살려 3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연구활동을 한 여성이면 가입이 가능하데 각 연구소 대표 20명이 이사로 있으며 현재 이 단체에 가입한 여자연구원은 총 4백여명에 이른다. 이사회는 매달 한번 갖고 총회는 1년에 한번씩 열린다고 한다.

오세화실장은 기왕 회장직을 맡고 있으니 이 모임을 뜻깊고 의미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 하

나가 여자야말로 쓰레기문제나 환경오염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만큼 '생활과학화'에 여성연구원이 앞장서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전공과 무관할 수 있지만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또 하나는 남자연구원의 경우는 각종 전문적인 세미나나 모임이 있으면 곧잘 불려가 강연도 하곤 하는데 아직 여자연구원들의 경우는 이러한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여성과학단체가 주축이 되어 여성연구원들도 이리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한다.

수의학을 전공했던 오순섭박사의 3남2녀중 장녀로 태어난 오실장은 남매들이 모두 이공계로 진출한 이공계 집안에서 태어났다. 화학쪽으로 일찌기 전공을 선택할 수 있었던 배경도 어린시절 쉽게 이공계에 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고 전한다. 그래서 과학이 자칫 남성의 고유분야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무시할 순 없지만 교육은 혼련이고 환경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여성과학자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피력한다. 오박사는 또 이미 사회에 진출한 여성과학자가 후배 연구원들에게 그들이 걸었던 길과 또는 여자연구원들이 가장 많이 직면하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갈 때 앞으로 여성과학인의 전망도 밝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자연구원들을 이해해줄 수 있는 가정과 사회가 정착해야 한다고 전한다. 이런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대기업이 주축이 되어 탁아소 시설을 증가시키는

등 점차 변모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과연 여성들이 마음놓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고 또 남편이나 가족의 이해가 100% 되느냐 하는 것은 영원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고 전한다.

학계나 학회 더 나아가 세계에서 인정해주는 논문을 발표하고 전문적인 과학자 한명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사회 여러 조직 내에 고급인력이 기술력과 연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조건과 관심이 다져져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 연구실의 센터 승격 추진

“과학자는 혼자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자야말로 연구를 좋아하고 연구 그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국가가 존재하고 이들에게 연구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줄 때 좋은 연구에 매진할 수 있을 겁니다.” 오실장은 또한 아직 과학이 산업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해나가기야 한다고 보며 여자과학자들은 앞서 설명했듯이 환경이나 생활과학화에 앞장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스스로 독창적인 연구분야를 개척해 모험심을 길러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그리고 요즘 여성들은 옛날에 비해 시체조건도 좋고 사회인식도 많이 전환되어 있는 좋은 환경에 처해 있으므로 남자의 고유분야라는 항공이나 기계분야에도 과감히 뛰어들어 이 곳에서 본인의 꿈과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를 당부했다. 앞으로 오세화실장은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의 활성화와 염료염색가공연구실의 연구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센터로 승격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더욱 분주해 질 것 같다.

하정실(본지 객원기자)